

미국 주가상승까지 가서... 순대외금융자산도 '굉충'

美 주가 상승·증권투자 증가 등에 대외금융자산 1982억달러 급증 순대외채권 감소세... 단기외채비율 감소, 건전성 측면 긍정적

〈1면에서 계속〉 특히 자본증권 투자가 늘어난 가운데 미국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이 대외금융부채 증가폭보다 더 크게 늘면서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2020년말보다 1718억달러 급증한 6379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미국 등 주요국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미 증시에서 다우존스가 18.7%, 나스닥이 21.4% 상승했고, EU(21.0%)등도 크게 올랐다.

지난해 말 대외채권은 1조779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502억달러 증가했다. 중앙은행의 준비자산과 기타부문의 무역신용 등이 늘면서 단기 대외채권은 384억달러 늘

었고, 기타부문의 채무상품 직접투자 등이 증가하면서 장기 대외채권은 118억달러 늘었다. 일반정부,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부문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외채무는 6285억달러로 836억달러 증가했다. 단기외채는 기타부문의 무역신용이 주도해 전년보다 69억달러 증가한 1662억달러였고, 장기외채는 일반정부의 부채성증권이 주도하면서 767억달러 늘어난 4622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채권 증가액보다 대외채무 증가액이 훨씬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은 4494억달러로 전년말에 비해 334억달러 감소했다.

유복근 한은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외국인들이 국내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등 부채성 증권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 가장 컸다”면서 “여기에 IMF가 지난해 114억 달러의 SDR(특별인출권)을 배분했는데 이 자금이 채무로 분류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외지급능력과 외채건전성은 소폭 개선됐다.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비율(35.9%)과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비율(26.4%)은 전년말 대비 각각 0.1%p, 2.8%p 하락했다.

유 팀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장기채권은 천천히 빠지고 단기채권은 빠르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며 “단기외채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건전성 측면에서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지난해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진은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모습. 뉴스



- ▶ 삼성중공업(010140)=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9985억원 규모 LNG운반선 4척 수주
- ▶ 엑세스바이오(950130)=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보다 278.6% 증가한 280억원... 매출 314.7% 급증한 505억원
- ▶ 셀트리온제약(068760)=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전년 대비 70.7% 늘어난 3987억원... 영업이익 102.3% 증가한 478억원
- ▶ LG전자(066570)= 태양광 패널 사업 생산 및 판매 종료
- ▶ L인티네셔널(001120)= 자회사 예코 엔로지스부산 주식 900만주 450억원에 취득 결정
- ▶ 에스티아이(039440)= 283억원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 체결
- ▶ 웰바이오(010600)= BGF리테일 등 과 64억원 규모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스 터 공급계약 2건 체결
- ▶ 진원생명과학(011000)= M업체와 30억원 규모 플라즈마 DNA 공급계약 체결
- ▶ 칩스앤미디어(094360)= M업체와 42억원 규모 비디오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

“대선 테마주, 공매도 제한에 주가 하락폭 커질 수 있어”

李·尹 테마주 83개, 지인·사적인연·학연 등 기업가치와 무관

자본연 분석 결과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테마주 생애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 테마주 주가가 떨어지면서 과열이 해소됐지만 이번에는 공매도 제한으로 주가 하락이 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가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기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은 대선 테마주 83개 종목을 분석한 ‘20대 대통령 선거 정치테마주 현상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테마주로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83개 종목은 대통령 선거 후보와 기업 경영진 사이에 공통 지인(44%), 경영진과의 사적인연(18%), 학연(16%) 등 해당 기업의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매우 막연한 관계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재명(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사진 오른쪽) 국민의힘 후보의 테마주들은 기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뉴스

남길남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대선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학연, 지인, 혈연 등으로 우려 대통령 후보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면서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는 주식 종목을 일컫는다”면서 “기업가치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치테마주 현상은 과거 대통령 선거 사례를 보면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전 대선 정치테마주와 마찬가지로 20대 대선 정치테마주도 관련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등락이나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지난해 연초 대비 96% 가격이

급등했던 종목도 있었다. 정치테마주로 거론되자마자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가 바로 거래가 정지된 경우도 존재했다.

일부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20대 대선 정치테마주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매우 컸던 2020년에는 96번의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정치테마주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작년에는 148번을 기록해 상한가 빈도가 54.2% 증가했다. 반면 일반종목의 상한가 빈도는 지난해 38.4% 감소했다.

정치테마주의 가격 급등은 일반적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18·19대 대선 과정에서 각각 상위 두 후보의 정치테마주로 분류된 64개 종목은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과거 두 정치테마주 지수는 선거일 기준 13~24거래일 전부터 빠르게 하락했다. 이번에도 선거일에 임박해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매도 거래가 규제되면서 과거 정치테마주처럼 선거일에 임박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패턴이 약화될 수도 있지만 향후 주가 하락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코스피, 우크라이나 리스크 등 이슈 확인하면 저점 높아질 것”

NH투자증권 “中 방역정책, 각국 통화정책 주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중국 방역정책 변화 가능성, 각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3가지 이슈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요하다는 증권업계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할 허들이 많지만 극단적 상승에 의한 스트레스에는 내성이 생긴 것 같다”며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지수는 저점을 계속 높여갈 것이다”고 말했다.

확인할 이슈로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꼽았다. 전면적 무력 충돌로 번지기보다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와 유사하게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 병합 자치국 국민투표 진행과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림반도 사태의 경우 글로벌 지수는 1~3%의 하락을 경험했다”며 “현재는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 과거 지정학적 이벤트 사례의 평균적인 약 4%내외의 충격을 예상하고 크림반도 사태와 유사하

게 진행될 경우 이후 낙폭을 완화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한 중국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증 치료 시스템이 취약해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오미크론의 낮은 치사율과 양회에서 발표될 목표 경기 수준 달성을 감안해 향후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중국 내 일부 이동 완화 정책 등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이 경우 중국 탈탄소 에너지 완화 정책과 맞물려 중국 생산 및 출하부터 시작되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병목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중국 소비도 코로나19 이전의 3분의 2 수준까지는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2월 물가지표 발표와 각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들었다. 고물가에 대한 우려와 각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삼성생명, 순이익 1조4694억 작년 배당수익만 1조7800억

삼성생명이 지난해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삼성전자 특별배당과 계열사 이익이 늘어난 덕을 크게 봤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생명은 기업설명회(IR)에서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6.1% 증가한 1조469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배당수익만 1조7800억원을 받았다. 이는 1분기 삼성전자 특별배당 8020억원을 포함한 액수로 전년보다 88.16% 증가했다. 또한 삼성전자, 삼성카드 등 계열사 수익이 늘면서 삼성생명의 연결 이익이 증가했다.

김학형 기자 hkim@skyedaily.com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꿈이 깃든 기술력에 **기술보증기금이 희망을 DREAM**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시스템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전문·사기·기반 기술평가시스템

AIRATE

기술평가에 인공지능(AI)기법을 국내외 최초로 도입

전문가인 인공지능(AI)이 상호 시너지를 이끌어 내도록 개발된

기술보증기금의 독창적인 기술평가시스템

기술에 가치를 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NO.1 혁신성장 파트너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KIBO 기술보증기금